



www.gwcf.or.kr

보도자료



대관령음악제
Music in
PyeongChang

배포: 2022년 7월 2일(토)

보도: 2022년 7월 2일(토) 이후

본문 2쪽, 불임 4개

담당: 평창대관령음악제운영실

전화: 033-240-1363~4 이메일: pr@mpyc.kr

성대한 축제의 서막,

제19회 평창대관령음악제 2일 개막공연 성황리에 열려!

- 제19회 평창대관령음악제, '마스크(MASK)'를 주제로 2일 성황리 개막
- 메튜 에른스터, 손열음, 조성현, 김두민, 모딜리아니 콰르텟, 에스메 콰르텟이 음악제 포문 열어
- 독주, 실내악, 오케스트라, 성악 등 다양한 공연으로 23일까지 계속돼

□ 강원도가 주최하고 강원문화재단이 주관하는 제19회 평창대관령음악제가 지난 2일 성황리 개막했다. 올해의 주제는 지금 우리와도 가장 가깝고 필수적인 '마스크'이다. 가면을 뜯하기도 하는 '마스크(MASK)'는 페르소나(persona), 퍼슨(person), 퍼스낼리티(personality)와 같은 단어로 연결되는데, 작곡가와 연주자 등 다양한 예술가들을 조명하는 음악제로 꾸며진다.

□ 개막공연은 타악기 주자 메튜 에른스터가 무대에 올라 지난해 작고한 프레데릭 르제프스키의 '대지에'를 연주하며 음악제의 시작을 알렸다. 화분을 두드리며 고대 그리스 "호메로스 찬가" 중의 한 편, "대지의 여신; 가이아에게"를 읊으며 실험적이고도 참신한 무대를 선보였다. 두 번째 곡으로는 피아니스트 손열음과 첼리스트 김두민, 플루티스트 조성현이 함께 마스크를 쓰고 조지 크림의 '고래의 노래'를 연주했다. 이번 음악제의 주제인 '마스크'와 맞닿아있는 곡으로 몽환적인 푸른빛의 조명과 연주자들이 쓴 가면만으로도 관객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기에 충분했다.

□ 2부는 대관령을 처음 찾는 두 사중주단의 무대로 꾸며졌다. 세계 최고 권위의 워그모어홀 국제현악사중주 콩쿠르에서 우승한 에스메 콰르텟이 무대에 올라 코른골트의 현악 사중주 2번을 선보인 후, 프랑스 출신 모딜리아니 콰르텟과 함께 멘델스존 현악 팔중주를 연주하며 처음 합을 맞췄다. 이날 공연에는 건강상의 이유로 내한하지 못한 모딜리아니 콰르텟 비올리스트 로랑 마르팡의 자리를 비올리스트 김상진이 대신하였으나 조화롭고 아름다운 하모니를 들려주어 관객들의 열화와 같은 환호에 힘입어 예정에 없던 앵콜을 선사하며 개막공연을 마무리했다.

□ 한편, 지난 1일부터 지사직 공무 수행을 시작한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평창을 방문해 음악제 개막을 축하했으며 심재국 평창군수, 박진오 강원일보 사장, 허인구 G1 방송 사장, 강원디자인

진흥원 최인숙 원장, 서정진 셀트리온 명예회장, 주원석 미디어윌 회장 등 주요 인사도 참석해 음악제 개막을 축하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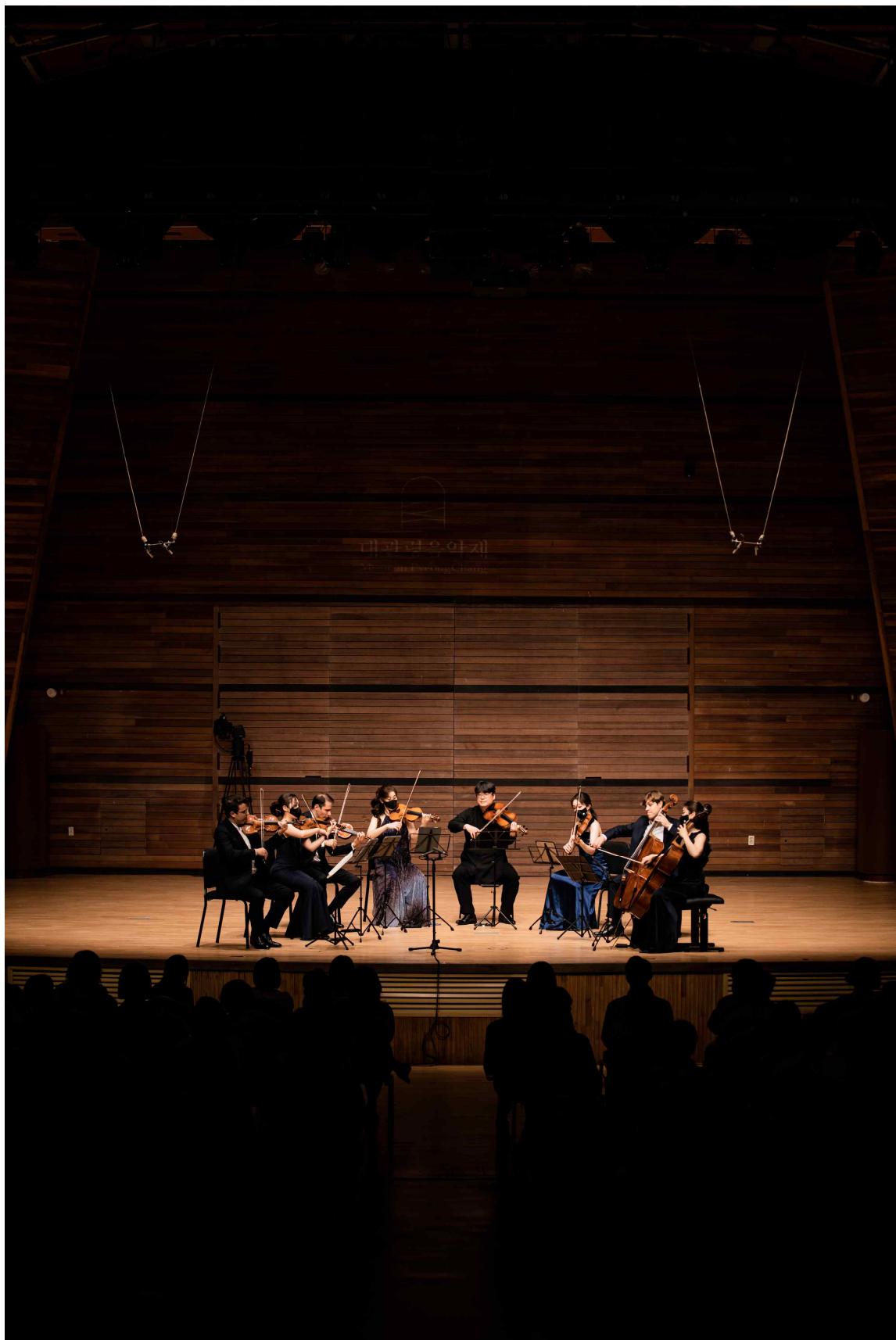
□ 성공적인 개막공연으로 포문을 연 제19회 평창대관령음악제는 앞으로 남은 17회의 메인 콘서트 외에도 실내악 및 개별 악기 마스터클래스, 스페셜 콘서트, 찾아가는 음악회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7월 23일까지 계속된다.

-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대관령음악제 운영실(☎ 033-240-1363~4/pr@mpyc.kr)로 연락 바랍니다.
- 음악제 웹하드 : www.webhard.co.kr (게스트) ID : mpycgw PW : mpyc
GUEST 폴더 > 제19회 평창대관령음악제

붙임 1. 제19회 평창대관령음악제 개막공연 사진







붙임 2. 제19회 평창대관령음악제 포스터

